

여성과 화장품



조영옥

요즘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화장품을 점점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화장품' 하면 바로 여성을 떠올릴 만큼 여성과 화장품은 깊은 관계가 있다.

여성들이 화장품을 왜 쓰는가 라고 물으면 어리석은 질문이 될 것이다. 누구나 그 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에 있는 결점을 감추어 자신감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피부를 잘 가꾸어 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약하면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사용한다.

여성이 화장품을 많이 쓰게 되는 데에는 광고의 효과가 아주 크다. TV의 화장품 광고를 보면 아름다운 모델이 나와 화장품을 듬뿍듬뿍 찍어 바르며 고운 피부와 예쁜 얼굴, 날씬한 몸매를 자랑한다. 마치 그 회사 제품을 바르면 그 모델처럼 어여쁜 여인이 될 수 있다는 듯이.

잘 알다시피 이것은 착각이다. 그렇지만 이 광고가 여성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빠져들기 쉬운 환상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사

실이다. 광고의 끊임없는 주입 효과 때문이다.

여성들에게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장을 해서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얻기 이전에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장품의 사용이 얼굴과 피부에 정말 좋은 것인가? 과연 화장품이 외면의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일까?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피부의 건강을 위해 기초화장품이 필요하다」라는 이론은 근거가 없고 「가능하면 아무 것도 바르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한다.

화장품 제조회사들은 기초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피부가 거칠어진다」 「주름이 생긴다」 「피부가 빨리 노화한다」 등의 말로 겁을 주는데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일까?

이제 화장품의 일반적인 성분을 알아본다. 화장품에는 약 5,000여종의 화학성분이 들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산화방지 사



화장품에는, 산화방지제, 살균제, 계면활성제, 색소, 안료, 향료, 방부제 등의 화학성분이 5천여종이나 들어 있다.

제와 살균제, 계면활성제, 색소, 안료, 향료 및 방부제를 들 수 있다.

산화방지제와 살균제는 화장품에 들어 있는 동식물성 유지 등의 지방성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들어가는데 그 독성으로 인해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 속의 물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하기 위해 쓰이는데 화장품의 5~8%를 차지하며 피부로부터 지방을 빼앗아가 얼굴을 거칠게 하거나 습진을 일으키고 몸속에 흡수되면 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크립에 많이 들어가는 습윤제인 글리세린은 고농도일 때 점막에 자극을 주기도 한다.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색소는 타르 색소인데 석유에서 분리하여 합성되며 90여종의 타르 색소 대부분이 발암성이다.

우리는 립스틱이나 그밖의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니까 먹는 것과는 달리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입술에 발라진 립스틱은 음식물을 먹을 때 많은 양이 몸속으로 들어간다.

국제소비자연맹(IOCUI)이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보낸 발암물질이라는 색소는 적색 203호, 204호, 적색 213호, 오렌지 203호인데,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들을 발암물질로 규정하여 88년 7월 15일부터 전면 사용금지령을 내렸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중인 립스틱, 볼펜지 등 일부 화장품에서는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화장품에는 약 20여종의 안료가 쓰이는데 안료란 그림물감이나 크레파스의 원료와 같이 납, 산화철, 카드뮴 등의 금속화합물이다. 이것의 문제는, 불순물인 수은, 납, 아연, 크롬 등의 중금속은 얼굴의 부작용은 물론이고 인체에 아주 위험하다는 것.

화장품에 쓰이는 향료는 거의 합성제품이다. 천연향료는 값이 비싸 보통 화장품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기술의 발달로 천연향료와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합성향료는 약 4,000종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가격이 싼데, 이 화학물질들은 피부에 자극을 주어 알레르기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화장품 회사마다 미량씩 섞어 사용하므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화장품은 대개 미생물의 성장에 적합한 상태이므로 부패와 산화가 쉬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부제가 들어간다. 남성용 아프터셰이브 로션에는 살균제로서 살리실산, 페놀, 크레졸 등이 많이 쓰이는데 이들은 식품첨가물로는 금지된 것이므로 만약 피부로 흡수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암의 유발 여부와 관련지어 한가지 덧붙일 사항이 있다. 머리 염색약 또는 헤어칼라라는 제품의 사용시 주의사항에는 「사용 전에 피부가 허는지의 여부를 테스트해서 안전성을 확인하십시오」라고 써 있는데 그만큼 피부의학상 유해한 것이고 이것의 발암성에 대한 의혹이 크다.

미국 국립 암연구소는 헤어칼라의 성분이 동물에 암을 일으킨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파라페닐시아민」이라는 성분이 빛에 닿으면 그 독성이 아주 강해진다고 한다. 암의 유발 여부가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헤어칼라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화장품의 성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개별 화장품에는 이러한 성분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판단을 내릴 근거가 없는 것이다.

화장품에 유해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음을 알더라도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해야하는 여성들을 위해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적어보겠다.

① 화장을 시작하는 시기를 가능한 한 늦춘다.

화장품에 의한 피해를 줄이려면, 되도록 적은 양의 화장품을 바르고, 화장시간을 짧게 하며, 화장을 지을 때는 깨끗이 씻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② 화장품은 되도록이면 적은 양을 바르고 사용하는 제품의 가짓수도 적게 한다. 그래서 피부가 화학물질의 작용에 부담을 받아 내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준다.

③ 화장시간은 되도록 짧게 한다.

④ 화장 후에는 잘 씻도록 한다.

⑤ 화장품을 사용하다 피부에 이상을 느낀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사에게 상담을 한다. 화장품 가게나 화장품 회사 직원에게 상담하면 그들은 또다른 화장품을 사용해보도록 권유할 것이다.

⑥ 화장품의 선택 시 제조일자가 표시된 제품을 고르도록 하고 제조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된 제품은 아깝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지막에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진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다. 외면의 미보다 내면의 미를 중시하는 철학을 가지고, 알맞은 수면과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결합 때만이 우리의 몸과 얼굴을 젊고 싱싱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 것이다. ☞

〈필자=여성 민우회 노원·도봉 지회 회원〉